

플라스틱 비행기 머지 않았다!

Boeing, 비금속재료 · 복합재료로 737 조립 ... 제작 · 유지비 절감

앞으로 외국을 오가는 여행객들은 플라스틱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비행기 제조기업인 Boeing의 앨런 물랄리 사장은 앞으로 737 비행기가 모두 비금속 재료나 복합재료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BBC 인터넷판이 7월17일 발표했다.

7월17일 개막한 판버러 에어쇼를 앞두고 물랄리 사장은 복합재료는 부식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비행기는 모두 복합재료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물성이 다른 2개 이상 소재를 섞은 복합재료는 이미 테니스 라켓과 자전거 바퀴살에 이용되고 있다.

2007년 처녀 비행을 할 예정인 Boeing의 신형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도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를 이용해 제작되고 있다.

물랄리 사장은 Boeing이 인기 기종인 737기를 신형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게 되면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복합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량 복합재는 비행거리와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신형 737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앞으로 5년은 넘어야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물랄리 사장은 내다봤다. (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7/19>